



기업의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과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2017년 현재 국내 기업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출한 손해보험료는 6조 8,149억 원, 매출액 대비 0.1707%이지만 미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손해보험료 지출 비율 1.0%의 1/5에 불과함. 이는 국내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지난 11월 KT 통신구의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은 화재 등의 직접손해 리스크 외에도 영업 중단 등의 간접손해 리스크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기준, 사업계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업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리스크의 발생요인을 인식하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추진해야 함

■ 기업은 건물과 공장설비,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 자산의 재해손실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활동은 ① 노출된 리스크의 분류·확인, ② 사고발생 빈도와 손실규모 평가, ③ 사고예방 활동을 통한 리스크 통제, ④ 기업이 보유하거나 보험 가입 등으로 구성됨
- 기업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에 따른 영업손실을 감소시켜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¹⁾
- 그러나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스스로의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경우, 재해손실로 인한 영업손실은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음
 - 건물 등의 직접손해와 휴업과 같은 간접손해 리스크를 전부보험(Full Insurance) 형태로 충분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이익(지급보험금)보다 특별손실(발생손해액-지급보험금)이 더 커져 영업손실이 확대됨
- 따라서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사회 공헌을 위해서는 휴업 등 간접손해 리스크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1)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특별손실(사고손해액)+특별이익(보험금)

■ 2017년 국내 기업²⁾이 화재 등의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손해보험료³⁾는 6조 8,149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6.86% 증가함

- 2017년 한 해 동안 대기업은 1조 4,284억 원의 손해보험료를 지출하였고, 중소기업은 5조 3,865억 원을 지출함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손해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어업, 전기·가스, 운수창고, 정보통신, 예술·스포츠 업종의 대기업이 지출하는 손해보험료가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이는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잠재 리스크가 축소되었거나, 일부보험 가입 또는 담보위험 제외 등의 보험가입 조건 변경과 같은 불충분한 리스크 전가,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하 경쟁 등에 기인함

〈표 1〉 기업의 업종별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전체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전(全)산업	14,284	1.20	53,865	8.53	68,149	6.86
농업	6	19.14	197	13.20	203	13.37
어업	4	-16.66	38	11.49	42	7.42
광업	5	-4.13	130	20.68	134	19.51
제조업	5,806	1.91	14,444	6.64	20,249	5.22
비제조업	8,479	0.72	39,421	9.25	47,900	7.58
전기가스	221	-1.06	118	17.67	339	4.41
건설업	1,305	18.60	7,210	8.21	8,515	9.63
도소매업	2,338	11.08	11,418	9.21	13,756	9.52
운수창고업	361	-2.52	3,236	4.27	3,596	3.53
숙박음식업	276	4.44	819	11.57	1,095	9.63
정보통신업	1,367	-27.53	2,321	9.31	3,688	-9.92
부동산업	398	15.24	1,844	13.85	2,243	14.10
전문과학기술업	155	13.83	3,306	10.96	3,461	11.08
시설관리업	1,859	12.05	6,242	9.80	8,101	10.30
교육서비스업	58	29.08	384	15.27	441	16.82
예술스포츠업	72	-7.21	362	6.11	435	3.4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2) 정부기관,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 금융업을 제외하고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업 전체를 의미함
 3) 손해보험료는 기업이 판매와 관리 부문에 사용되는 건물, 건물부속설비, 비품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그 밖의 손해보험료를 의미함; 한국은행, 『2018 기업경영분석』, p. 29

■ 또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손해보험료 비율로 정의되는 리스크 전가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대기업은 매출액의 0.0612%,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0.3252%를 손해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음
 - 대기업의 리스크 전가 비율은 최근 3년간 3.26% 감소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부동산업(-31.38%), 어업(-18.93%), 비제조업(-4.45%), 제조업(-1.93%) 순으로 감소하고 있음
 - 반면에 리스크 전가 비율이 상승하는 업종은 광업(25.13%), 건설업(12.11%), 시설관리업(9.89%)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리스크 전가 비율이 5배 이상 높고, 건설업(-2.42%), 도소매(-0.65%), 숙박·음식업(-0.25%), 전문과학기술업(-1.27%)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리스크 전가 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최근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 등으로 리스크관리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2〉 기업의 업종별 리스크 전가 비율 현황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전체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전(全)산업	0.0612	-3.26	0.3252	1.35	0.1707	1.18
농업	0.0494	4.18	0.2887	7.75	0.2513	6.58
어업	0.0286	-18.93	0.3135	8.06	0.1587	4.32
광업	0.0447	25.13	0.5427	15.19	0.3940	28.02
제조업	0.0467	-1.93	0.2499	1.75	0.1111	0.98
비제조업	0.0777	-4.45	0.3655	0.82	0.2208	0.69
전기가스	0.0155	0.47	0.4397	0.51	0.0234	5.74
건설업	0.0703	12.11	0.3044	-2.42	0.2016	0.98
도소매업	0.0933	7.43	0.7564	-0.65	0.6429	1.21
운수창고업	0.0656	3.44	0.2326	2.01	0.1623	2.17
숙박음식업	0.0329	-1.83	0.5118	-0.25	0.2082	2.38
정보통신업	0.1440	-2.80	0.6415	5.85	0.3429	2.83
부동산업	0.1194	-31.38	0.4586	2.71	0.2234	-14.91
전문과학기술업	0.0447	-1.08	0.2175	-1.27	0.1290	-1.57
시설관리업	0.1033	9.89	0.7389	2.73	0.5790	3.97
교육서비스업	0.6849	-4.98	1.3202	2.59	1.0885	-0.31
예술스포츠업	0.1848	15.94	0.6671	6.67	0.4978	7.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자료

■ 국내 기업의 리스크 전가 비율은 미국 기업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의 직·간접 손해를 고려하면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리스크관리를 수행할 있는 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미국 기업들의 리스크 비용(Total Cost of Risk)은 매출액 대비 1% 내외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업은 0.1707%에 불과함

- 미국의 경우 보험시장 연성화 등으로 최근 들어 리스크 비용이 감소⁴⁾하고 있지만, 기업이 노출된 리스크(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간접손해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내 기업들은 사고로 인한 파급효과인 배상책임손해, 간접손해 등 리스크 전체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 지난 25일 KT 통신구 화재는 단순히 케이블의 화재손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KT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Business Interruption Loss)와 더불어 KT통신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많은 기업의 우발적인 영업손실(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Loss)이 대규모로 발생하였음
- 기업의 리스크관리 인식과 필요성을 사회전반에 확산시키고 전사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선진국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기준을 국가 규격화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⁶⁾
 - 아울러 정부 또는 사업자 단체는 기업이 화재, 폭발, 자연재해에 따른 사업계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⁷⁾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속계획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kiri**

4) 2013년 1.09%에서 2016년 1.007%, 2017년 0.975%로 약간 감소하고 있음; <http://www.rmmagazine.com/2018/08/01/total-cost-of-risk-declines-again-2/>(2018. 11. 30)

5) 국가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리스크관리 규격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34조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은 국제표준기구가 제정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기준(ISO 31000)을 국가규격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이기형(2017), 「기업 리스크관리 활성화를 위한 ERM 규격화 및 보험연계 방안」, 『리스크 관리연구』, 제 28권, 3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pp. 43~79)

7) 일본은 2003년 4월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내각부령』을 제정하여 기업의 리스크와 리스크관리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道端のぞみ외 4인(2010), 리스크情報開示の実態分析:日経225銘柄企業をサンプルとして, 桃山学院大学 学生論集, No. 25). 또한 기업들이 영업중단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속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각부 방재담당(<http://www.bousai.go.jp/kyoiku/kigyuu/pdf/guideline03.pdf>), 경제산업성(http://www.meti.go.jp/policy/netsecurity/downloadfiles/6_bcpguide.pdf), 중소기업청이 제공하고 각종 업종협회(정보서비스산업협회; https://www.jisa.or.jp/it_info/engineering/tabid/1123/Default.aspx)도 이를 준용하여 해당업종의 특성에 부합하게 제공하고 있음